

‘광양항 활성화·경쟁력 강화’ 현장 목소리 청취

김지사, 항만위원 등과 간담회...항만자동화 점검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 위해 운영 효율성 등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임직원, 항만위원,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 등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광양항의 점진적인 발전 방안 중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안전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항만 자동화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물류의 흐름을 더욱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양항은 세계 주요 항만 중 하나로 항만 자동화·친환경 기술 도입 등 스마트 항만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이 6년 만에 반등해 200만TEU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광양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조성,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양항-울산산단 연결도로’ 적기 개설,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양항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광양항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을 구성하는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연수원 설립, 호남권 컨테이너·물동량 기준점 분석을 통한 선사·화주 매칭 마케팅’ 추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추진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을 구성하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현장’을 둘러보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선박 입출항 및 하

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항만 운영과 항만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전남도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항만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전남도의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만 자동화는 항만 내 물류 처리의 속도와 안전성을 높여 화물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항만 운영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기자

담양 육용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

전남도, 발생 농장 살처분 등 확산 차단 주력

담양 무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 등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40일령 1만2천여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으로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에서 소독과 통제 등 차단방



역이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출입차량과 사람의 철저한 통제, 소독,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강기정 시장, 최상목 대행에 광주 경제현안 건의

시도지사협 임원단 간담회...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긴급 추경 요청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을 비롯해 전국 4개 시·도가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정부에 신청

서는 안 되고 특히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산업 관련 대표 이슈로 AI 2단계 사업과 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추진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을 구성하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현장’을 둘러보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선박 입출항 및 하

한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산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는 AI 1단계 사업으로 국가데이터센터 등 AI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고 있다”며 “AI 2단계 사업(AI실증밸리)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국무회의 의결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입 없이 지역 경기 회복과 경제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역 상점에 선결제해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전남도 산하 100여개 공공기관과 나주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과도 긴

강 시장은 상생카드 국비 지원 확대 등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건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신인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변은진 기자

밀하게 협조하고 농협 전남본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도내 대·중소기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선결제 캠페인은 단순한 선결제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공기관, 민간이 하나 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선선(善先)결제’ 캠페인 소상공인 ‘숨통’

전남도·시군·공공기관·기업·금융기관 등 지역 상점 지원

전남도는 19일 “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선결제 캠페인은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역 상점의 매출을 지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별도 추가 예산

박진수김부각 구매하기

소중한 분께 정성을 가득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명절, 결혼식 등 특별한 날 귀한 분들께 폐백 음식 등 선물용 답례품으로 김부각을 선물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프리미엄 수제 부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박진수부각 명절 선물세트 ·

박진수부각 선물세트

선물세트(소): 3팩 ... 16,000원
4팩 ... 20,000원

선물세트(중): 5팩 ... 24,000원
6팩 ... 28,000원
7팩 ... 33,000원

선물세트(대): 10팩 ... 47,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 찹쌀카레김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선물세트(소)

선물세트(중)

선물세트(대)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

N 박진수부각